

'Lua ya' Review on Jazz Tokyo

Translated by 김소연

#1045 『Yeahwon Shin/Lua Ya』 text by 타다 마사노리
신예원. 여성 보컬? 한국계?

샘플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나니, ECM이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벌써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노래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렇다 치더라도 피아노 소리, 피아노의 터치감에 이끌렸다. 그리고 생각한다. 피아노를 녹음하는 레이블로서는 새로운 시대의 최상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 한가. 최근 10년간 언드라시 시프, 크레이그 테이본, 보보스텐손, 케틸 비외른스타드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 음반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의 거리감은 지금까지의 것들과 다른 감촉을 가지고 있다.

순수하고 얼마든지 어리광을 부려도 될 것만 같은 자장가, 아코디언의 향수.

노래 소리나 즉흥적인 보이스, 악기소리를 들을 때, 노래하는 사람의 모국어를 탐색할 준비를 한다. 애당초 나는 즉흥 연주된 음악 전반에 대해 연주자의 모국어라는 핑크션을 앞서 감지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러한 작품이 일본에는 없는 것 인가.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이슬람권에 속한 싱어에게도 가능한 것 인가. 역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만다. 80년대 일본의 포스트펑크에 존재해도 되지 않을까, 라든가.

연상은 계속된다. 전신전화공사의 음성 음질은 진화되지 않았다. 음질이 좋아지면 변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젊은 여성이 컵가에서 속삭이고 타액의 흐름이나 혀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들린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CD는 사지 않고 변태가 된다.

신예원의 타액의 흐름이나 혀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리는 레코딩 같은 것이다.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첨예적인 테크노에서도, 고음질의 R&B에서도, 약음으로 되어있는 즉흥적인 장면에서도, 아마도 어디에서든 사운드의 해상도는 진화되었다. 말하자면 일렉트로어쿠스틱한 수준의 경신으로 인해, 듣는 귀도 변화하고 있다. 귀가 변화되면 음악도 변화되고 녹음도 진화한다. 아, 반대인가?

이 작품은 일렉트로어쿠스틱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만들어진 어쿠스틱 ECM 뮤직이라고 생각한다.

아이허가 프로듀스한 ECM 사운드에는 40년간의 변천과 역사의 확립이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운드의 시원시원함은 어떠한가, 억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아니 한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작품이 ECM의 새로운 프로듀서 정선에 의해 만들어졌

다는 것을 음반 크레딧에서 알게 되었다. 정선이 제작한 첫 번째 앨범이 바로 이것이다. ECM의 후계자가 될 만프레드 아이허의 허락을 받아 연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 제1탄이다.

(그렇다, 샘플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ECM이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다고 판단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1982년도부터 ECM 팬클럽 회장이니까.)

경위는 정선이 아론 파크스의 피아노 솔로를 녹음할 때에 신예원과 즉흥으로 맞춰보았는데, 두 사람의 색다른 음악적 감성이 잘 맞아 들어, 이 트리오 편성으로 녹음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조금 드라마틱하다.

신예원은 2010년에 아티스트쉐어를 통해 첫 리더작인 『Yeahwon』을 발매하였으며,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매우 화려하다. 마크 터너, 제프 발라드, 벤 스트리트, 그리고 에그베르토 지스몬티도 한 곡에 참여하였다. 평범한 신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멤버들이었다. 아티스트쉐어는 큰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주제작적인 방침의 레이블이다. 2011년에는 카에타노 벨로조, 밀톤 나시멘토와 함께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되는 쾌거를 이뤘다.

모르고 있었다... 한국 재즈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다른 호에서는 아이허도 표지를 장식했다).

ECM의 새로운 프로듀서 정선은 지휘자 정명훈의 아들이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조카이다. 정선은 NY에 있는 기쿠치 마사부미의 아파트에 드나들며 “레이블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젊은이였다고 한다.

아직 음악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유럽적인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다. 자장가와 같은 앨범이기도 하다. 즉흥연주하는 것이 최고의 음악은 아니다. 왜 일본에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그녀 또한 특수한 사람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아직 한국출신 연주자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ECM이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타다 마사노리)

*참고 사이트 :

<http://player.ecmrecords.com/yeahwon-shin---lua-ya>

<http://www.jazztokyo.com/five/five1045.html>